2025년 5월15일 목요일 전남일보

충장로에 이국적 감성 입은 '홍콩의 거리' 들어선다

동구, 2억원 투입 6월 중 완공
청년 유입·체류상권 조성 목표
한자조형물…현지분위기 '물씬'
"젊은 감성 살아있는 새바람을"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충장로 상권에 이국적인 홍콩의 감성을 담은 특별한 거리가 들어선다. 이는 침체됐던 원도심 번화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동구는 충장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홍콩의 거리' 조성 대상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지난 13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때 침체기를 겪었던 충장로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인들과 협력하며 반값 임대 협약, 유동 인구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동구는 지난해 8월, 충장로안길 5(롯데시네마 인근 골목) 약 70m 구간에 젊은 감성을 담은 특화 공간 '홍콩의 거리' 조성에 나섰다. 이 거리는 청년 유동인구 유입과 도심 속 체류형 상권 조성을 목표로, 총 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이다.

당초 '홍콩의 거리'는 지난 2월 완공을 목표로 디자인, 점포 구성, 판매 콘텐츠 개발까지 마친 상태였으나, 대상지 임대료 조정 문제로 지연됐다. 동구와 임대인, 인근 상인들의 협의를 거쳐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에 동의하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거리에는 레스토랑, 주점, 디저트 카페, 위스키 바 등 다양한 점포가 들어서며, 야외 테이블과 네온사인, 한자 조형물, 간판 등으로 홍콩 현지의 분위기를 조성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조성 대상지는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폐점포 밀집 지역으로, 규모는 작지만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동구는 '홍콩의 거리'를 시작으로 쇼핑·음식·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콘텐츠를 통해 인근 골목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상권에 조성될 예정인 '홍콩의 거리' 조감도. 광주 동구 제공

정일성 충장로 1~3가 상인회장은 "이번 홍콩 거리 조성이 감각적인 충장로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게 조성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저녁 시간 유동 인구가 급감하던 충장로 상권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소비가 머무는 골목, 젊은 감성이 살아있는 거리로 발전시켜 지역 상권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5·18 기념' 프로그램 운영
북구 구립도서관서 8일간
전시·체험·상영 등 마련

광주광역시 북구가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16일부터 23일까지 5개 구립도서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오월 정신과 민주·인권·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먼저 중흥도서관에서는 △5·18 기억의 서가 展 △말하다, 쓰다, 기억하다 삼행시 등 전시 및 체험 과정이 진행된다.

16일부터 3일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원화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 20여권을 전시하고 5·18, 민주주의, 한강 등의 키워드로 삼행시를 제출한 주민에게 1회 연체 무효, 대출 권수 추가 등의 혜택이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18일에는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18 스토리텔링과 북아트 체험활동을 제공한 뒤 주먹밥을 만드는 '민주의 책상, 기억의 도시락'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일곡도서관은 오는 20일까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포함한 5·18 관련 도서를 필사하고 직접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관련 도서를 대출하는 주민에게 5·18 추모 꽃 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운암·양산·신용도서관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사가 진행된다.

프로그램에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북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도서관과에 문의하면 된다.

정승우 기자

송정1동 5·18 오월걸개 전시회
광산구, 청소년·주민 공동 창작
5·18 사적지 5곳 의미 재해석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청소년의 시선과 손끝을 통해 새로운 언어로 기억됐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1동이 마련한 '오월걸개' 전시에서는 지역의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만든 대형 그림을 통해 세대 간의 공감과 역사의 울림을 나눴다.

14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송정1동은 지난 13일 송정다누리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5·18 오월걸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송정1동 주민자치회와 송정다누리청소년문화의집이 공동 주관했으며,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지역 주민, 청소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걸개그림 전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주먹밥 나눔 등으로 꾸며졌으며, 5·18민주화운동을 다양한 세대가 함께 기억하는 참여형 기념의 장으로 마련됐다.

전시된 걸개그림은 지난달 19일과 26일 청소년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공동 창작 작업의 결과물이다. 참여자들은 5·18 사적지 중 옛 전남도청, 광주기독병원, 5·18민주광장, 전일빌딩, 양동시장 등 5곳을 선정해 각각의 역사적 의미를 청소년의 언어와 감성으로 재해석해 그림에 담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사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활동은 민주주의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세대가 함께 성장하며 공감할 수 있는 지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광주광역시시민사회지원센터(광주센터)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025 오월마중물' 행사를 개최한다. 광주광역시시민사회지원센터 제공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16일 '오월마중물' 개최

지원넷 공동주최, 3일간 진행돼
5·18전야제·기념식 참석 활동 등
"경계 넘어, 오월정신 전국화를"

광주광역시시민사회지원센터(광주센터)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025 오월마중물'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협의체인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지원넷)'와 광주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5·18기념재단이 후원한다. 전국 각지의 중간지원조직 센터장과 공익활동가 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025 오월마중물'은 올해 5·18 기념 슬로건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에 맞춰,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던 시민들의 염원을 되새기고 오월정신의 전국적 확산과 대중화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민주평화대행진 및 전야제 참석', '5·18 사적지 역사탐방', '오월정신 대중화 방안 워크숍', '기념식 참석 및 민족민주열사묘지 참배' 등으로 구성됐다.

이기훈 광주센터장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지원넷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오월정신의 전국화와 대중화를 고민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월정신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광주센터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남구, 노후 주방시설 청소 지원 사업 실시

광주광역시 남구가 관내 소규모 음식점의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주방시설 청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4일 남구는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에서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청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은 뒤 오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구청 5층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20개 업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인 식사류 취급 업소를 1순위로 지원하며, 그 다음으로는 장기 운영업소와 착한가격 업소,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내 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참여 중인 업소 순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선정 업소에는 화구와 후드, 덕트, 환풍시설, 주방 벽면 및 바닥, 식품보관 장소의 청소를 지원하며, 맞춤형 위생관리 교육도 제공한다.

이정준 기자

화정아이파크 현장 안전 '강화'
서구, 국토안전관리원 코칭 도입

광주광역시 서구가 화정아이파크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14일 서구는 화정아이파크 건설 현장에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안전 코칭'을 도입,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중심의 강화된 안전 및 품질 관리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안전 코칭'은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으로,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점검이 이뤄지며, 준공 시까지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 '현장 양생공시체 관리',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시 책임기술자 승인 여부', '건설기계의 작동 상태 및 전도 방지 조치' 등으로, 이를 통해 현장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화정아이파크 건설 현장은 지난해 10월 주거 층 해체공사를 마친 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올해 1월부터 재시공을 진행 중(공정률 약 31%)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전일번지 서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